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제8회 한다숨 희망음악회’ 개최

지난 1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생명나눔 실천본부 공동주관으로 ‘제8회 한다숨 희망음악회’를 개최했다.
한다숨 희망음악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매년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음악회이다.
이날 식전행사로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정지천 부의료원장, 채석래 일산병원장, 지도법사 덕유스님, 김재선 행정처장, 연예인 홍보대사와 후원회장은 환자들의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떡을 나눠주며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투병 중인 어려운 환경의 환자 5명을 선정하여 치료비로 각 1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1층 로비에서는 공연을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지천 부의료원장은 축사에서 “한다숨 희망음악회가 환우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라며, “교직원 모두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 2017 실크로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란저우대학 부속병원에서 개최되는 ‘2017 실크로드 국제 인공관절 포럼’에 초청을 받아 시술 및 강연을 한다.
이번 학회는 중국 서북부 3성인 칭하이성, 신장성 자치 지구와 간수성 정형외과 의사들 교육과 연수를 위해 열리는 데 란저우대학 부속 병원 요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박 교수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가량 인공 슬관절 수술을 생중계 방송으로 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역학적 정렬(kinematic alignment of total knee arthroplasty)이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펼치게 된다.
박상은 교수는 개원한 2005년이래로 본원에서 슬관절 인공 치환술을 1천 사례 가까이 시행하여 환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오고 있으며, 2016년 11월 중국 베이징 대학 부속 병원장과 중국 정형외과 정기 학술 대회에 공식 초청받아 강연하여 중국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양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일 일산동구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산동구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대상자 연계와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 팀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퇴원하는 환자에게 일상생활의 문제로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로 연계하게 된다.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병원 처치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방문 진료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 재활치료 접근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우 재활의학과 과장은 “평소 재가 장애인 및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퇴원 시 병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어 반갑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턴 및 신규간호사 백일기념 축하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15일 2017학년도 인턴 및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축하행사는 100일 된 새내기로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역 간의 소통 및 화합의 문화를 키우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축하 자리를 위해 채석래 병원장을 비롯한 김재선 행정처장, 박석원 진료부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 수련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인턴과 간호사를 격려했다. 또한, 인턴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Best 간호사와 인턴을 선발하고, ‘유느님상’, ‘우샤인 볼트상’, ‘츄데레상’, ‘미소상’, ‘미모상’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상식을 마련하여 즐거움을 더했다.
김광기 교육연구부장은 “인턴과 신규간호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시행하는 100일 잔치를 통해 병원 내 각 직역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